

# 광양시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공사 순항

### 과학관·상상놀이터 설계용역 중간보고·자문위 회의 및그림 논의 숲속야영장 착공...황길동 일원 1348억원 투입 2026년까지 완료

광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하 테마파크)'이 순항하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정인화 시장의 주재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광양 전문 과학관(이하 과학관)과 구분산권역 관광거점(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하 상상놀이터)'에 대한 건축 설계용역 중간보고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다. 황길동 6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에는 과학관과 상상놀이터, 숲속 야영장, 스포츠클라 이밍장, 300대 규모 통합주차장, 진입도로 등 6개 시설이 들어선다. 테마파크는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229억원과 도비 155억원·시비 964억원 등 총 사업비 1348억원이 들어간다.

지난 1월 숲속 야영장을 착공하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첫발을 뗐다. 테마파크의 핵심 시설인 소재 전문 과학관은 60만3451㎡ 면적의 중앙근린공원 가운데 1만435㎡ 부지에 지어진다. 소재 전문 과학관은 소재 산업에 특화된 광양만 권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연면적 7010㎡(지하 1층·지상 2층)의 국내 최최 유일의 소재 분야 전문 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억 규모의 강당 과 어린이 체험관, 상설전시관·기획전시실, 과학교 실, 창의실(스튜디오) 등이 과학관에 들어선다. 카페와 가족 수유실, 기념품 가게 등 편의시설 등도 마련된다. 실내 상상놀이터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연면적 2820㎡의 실내 놀이터를 조

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전시물 제작 설치 착수 보고·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과 조달청 계획 단계 적정성 검토 의견을 반영한 건축 계획설계에 대한 보완과 전문가 검토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용역사가 제안한 과학관과 상상놀이터의 건축 기본계획에 대해 ▲관람과 운영 동선을 고려한 평면 계획 수립 ▲운영인력·운영비를 고려한 실내공간 구성 ▲전시물 교체에 따른 중량물 이동 계획 ▲소 방차량 진입·대피 공간 확보 등 건축·전시·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질의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오승택 광양시 아동친화도시과장은 "과학관과 상상놀이터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전시콘텐츠를 구성하고 전시콘텐츠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한 건축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달 31일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가족형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축 설계용역 중간보고와 자문 위원회가 열렸다. (광양시 제공)

## 여수산단 보임코퍼레이션, 전동휠체어 등 40대 기증

### '무장애 운동' 여수시의회 주선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에 전달

여수시의회와 여수산단 내 보임코퍼레이션(대표 한문선)이 이동약자를 위해 휠체어와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각각 20대씩을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여수시의회와 여수산단 내 보임코퍼레이션이 휠체어와 휠체어보조동력장치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강현태 운영위원장과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은, 보임코퍼레이션 한문선 대표가 의견을 모아 2500만원 상당의 휠체어를 기증했다.

보임코퍼레이션은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에너지 공급회사로 스템을 생산해 인근 공장에 공급해 왔다.

이 회사는 어린이·노인·노숙인 등 어려운 이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교 발전 및 연구기금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여수시의회와 연계해 뜻깊은 지원방안을 마련해 앞장섰다.

보임코퍼레이션과 함께 휠체어 기증 운동에 나선 강현태, 민덕희 의원은 여수를 '대한민국 제1의 무장애 도시 및 무장애 관광도시'로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7대에 이어 8대 의회에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현태 의원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동권 보장"이라며 "이렇게 뜻깊은 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보임코퍼레이션 한문선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임코퍼레이션 김태형 부사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무장애도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보임코퍼레이션은 여

수 지향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이동 약자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민덕희 의원은 "무장애 도시 조성은 당연한 과제이며, 여수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복원에 기초가 되어 보편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고흥군 하반기부터 시행

고흥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영양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등록 임산부 대상 건강행가를 통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기본방문, 지속 방문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 방문은 출산 후 8주 이내에 산모의 영양·운동·수면 등 건강 상담과 우울 평가 및 정서적 지지, 신생아 건강발달 평가 등을 제공하며, 지속방문은 우울감, 스트레스로 임신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 교육을 제공한다.

고흥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 ▲양·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돌봄바우처) ▲출산 축하 선물 지원 ▲분만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보충 지원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 여수시 소상공인 무인 단말기 구입비 지원

300곳 대상 50만원까지

여수시가 지역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무인 단말기 구입비를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기는 스마트 주문, 디지털 메뉴 주문기, 대기 번호 발부 기기, 무인 판매기, 서빙 로봇 등이 있다.

여수시는 소상공인이 외식업체 디지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교육도 진행한다.

오는 14일까지 여수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팀(061-659-3617)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관계자가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의 하나로 지역 가게에 무인 정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광양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공사현장 활용

광양시가 공공 하수처리장 3곳의 방류수를 인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며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시는 중앙·광양·광영 등 공공 하수처리장 3곳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나온 방류수(처리수)로 인근 공사현장에서 날리는 먼지를 가리냈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사현장 먼지 억제용으로 쓸 수 있는 처리장 방류수 용량은 5만리 넘는다. 하수처리 방류수는 부유물질을 포함해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실험을 거친다. 이 물은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되고 있어 건설현장 등에서 다시 쓸 수 있다.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그동안 인근 하천수를 써

왔으나 가뭄 심화로 인한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광양시는 청소, 세척, 살수, 조경수 등으로 쓰였던 방류수 용도를 늘릴 예정이다.

분야별 수질검사를 벌여 농업용수·공업용수 등 용도별 대체 수자원의 적합성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김진호 광양시 하수처리과장은 "엄격한 하수처리 공정을 통해 처리된 방류수를 건설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가뭄 해갈에 보탬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수처리 방류수의 이용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 "저온피해 주의" 과수 농가 대응 당부

곡성군이 8-9월 저온 시기와 주요 과수의 개화 시기가 겹쳐 과수 저온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봄철 평균기온이 상승해 배, 사과, 복숭아 등의 주요 과수의 개화 시기가 평년 대비 7-10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8-9월 내륙지역은 최저기온이 0-2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꽃과 어린 과실 등이 저온 피해를 보면 수확량이 줄어들고 상품성이 떨어진다. 곡성군은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 연소자재, 방상팬, 스프링클러 등을 가동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농가에서는 저온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순천에서 자고 가세요"...숙박 할인 이벤트

광주·전남 의 대상...12월 10일까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는 순천시가 다른 지역 관광객 숙박 수요를 잡기 위해 '2023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를 오는 12월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할인 대상은 전남과 광주의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다.

순천지역 숙박업소를 우선·현장 예약한 뒤 숙박업소를 찾아 할 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1회에 한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최고 10박까지 머물 수 있다. 1박 요금 기준 10만원 이상이면 4만원을 할인받고,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 등의 할인 금액이 적용된다.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업소 목록과 공식 가격표는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천에 머무르는 관광객에게 청결·친절·안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시 청년 월세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

여수시가 지역 청년에게 월세를 한 해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에 사는 만 19-34세(1988-2004년생) 청년이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을 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 가구일 경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7000만원 이하이다.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상한액은 60만원으로, 여수시는 한 달 최고 20만원씩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8월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8월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청년 103명에게 7000만원의 월세를 지급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기준 140여 명의 월세를 지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군 세계차엑스포 이모티콘 무료 배부

내일부터...선착순 3만5000명

보성군이 '보성세계차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7일부터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로 꾸민 카카오톡 이모티콘(사진)을 무료로 나눠준다.

이모티콘 BS삼총사는 카카오톡 '보성군청' 채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성군 특산물인 녹차와 벌교 꼬막, 키위 등 'BS삼총사'가 보성세계차엑스포를 응원하고, 보성 차밭을 즐기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이모티콘 배포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선착순 3만5000명이 이모티콘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보성군청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면 보성군의 다양한 소식과 축제·공연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5월7일까지 열리는 보성세계차엑스포를 응원하기 위해 우리군 특산물 캐릭터 'BS삼총사'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엑스포 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것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